1920년대 한국불교, '야구'로 포교했다

이성수 동국대 겸임교수, '전자불전' 26집서 주장

대구불교청년회 '체육 포교' 조명
지역 소학교 학생 단원으로 구성
백석기 회장 중심 체계적 육성해
대구지역대회서 우승까지 거머줘
1920년대 혁신적 불청운동 사례
근대체육사+불교운동사 연구 기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스포츠를 통한 포교는 현대 한국불교계에서는 익숙해진 포교활동이다. 지역불교계나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스포츠를 통한 친목도모와 신행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스포츠 포교의 기원이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혁신적 불교청년운동의 방편으로 이뤄졌음을 조명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성수 동국대 겸임교수(불교신문 편집국장)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 스님)가 발간하는 학술지 〈전자불전〉 26집에 게재한 연구논문 '1920년대 불교계 소년야구단 설립과 활동 연구'를 통해 1920년대 대구 조선불교청년회가 운영한 소년야구단의 설립과 활동을 고찰했다.

특히, 이번 연구논문은 오시마 가쓰타로(大島勝太郎)가 쓴 〈조선야구사(1932)〉에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근대 한국 야구 및 체육사와 지역 불교청년운동사 연구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이성수 겸임교수에 따르면 불교계의 야구 활동은 종로 각황사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각황사는 보성학교와 인접해 있었고, 사찰 옆 운동장은 학생들에게 근대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체육 교육을 할 수 있던 공간이었다. 1924년에 이르러 보성학교가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관리로 넘어가며 불교계의 야구 활동은 체계화됐다. 이를 통해 당시 학교 이사진들이 근대 체육 교육의 중요성과 체육을 통한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체육활동은 1920년대 대구, 공주, 진남포 등 중요 도시의 불교청년회로 확장됐다. 이성수 겸임교수는 대구의 '조선불교청년회'의 활동에 주목했다. 1920년 6월 27일 100여 명의 불교 청년들이 모여 창립한 조선불교청년회는 최근 불교청년운동가로 불교학계에 주목받고 있는 '백석기'가 회장을 맡았고, 임원진도 부회장·총무·각 부장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체육부장'이 임원진에 있었다는 점은, 당시 조선불교청년회가 체육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인식했음을 잘 보여준다.

조선불교청년회의 소년야구부는 늦어도 1920년대 초반, 빠르면 1910년대 후반에 창단됐을 것이라고 이성수 겸임교수는 추정한다. 이들에 대한 첫 기록이 1921년 8월 밀양 원정 경기이기 때문이다. 1921년 8월 동아일보 기사에는 "15세 이내의 아동으로 야구를 원정한 일은 우리 운동계를 위하여 기뻐할 일이며 대구로서는 처음 되는 일"이라고 기록돼 있다.


大邱少年野球大會
大邱青年會主催大邱少年野球大會들은去十九日、二十日兩日間開한바第一日은七星町鐵道局運動場에서行하얏다參加團體는朝鮮佛教青年會少年野球部를始하야西星體育團、光進團、海星學校、喜媛學校、武光團의六個團體니定刻인午後一時半이되야各選手의入場式이有한後大邱青年會運動部長李愚震氏의開會辭와始球式을맛치고喜媛軍과武光軍이對戰하야武光軍이敗하얏스며다음에海校軍과佛教軍이相戰하야海校軍이敗하얏슴으로써第一日의幕을閉하고第二日은高等普校運動場에서午前十時부터海體軍과光進軍이始戰하야海體軍이敗한後最後의決勝戰으로喜媛軍과佛教軍의對戰에喜媛軍이敗하고마지막으로佛教軍과光進軍이雌雄을決하게되야勇戰一時半餘에結局最優勝의月桂冠은佛教軍의頭上으로歸하얏다일로써大會의終을告하얏는바二日間觀衆이無慮千名의盛況을呈하얏섯다이에優勝旗들압세운佛教軍은會長白奭基氏와함의自働車二臺에分乘하야府內를一週하고樂天食堂에서一同이晩餐을共卓한後同會館으로歸하야各散하얏다더라(大邱)

1921년 11월 29일 동아일보 기사. 대구소년야구대회에서 불교군(소년야구단)의 우승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년야구단의 구성도 눈길을 끈다. 10세 이상 15세 이하의 소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야구단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상대팀의 연령대가 15~22세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교의 소년야구단은 단순한 운동부가 아닌 지역 청소년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졌다는 게 이성수 겸임교수의 주장이다.

이런 교육의 성과였을까. 조선불교청년회 소년야구단은 1921년 11월 대구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921년 11월 29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불교군(佛教軍, 소년야구단)이 1시간 30분여의 용전(勇戰) 끝에 우승했다'고 기록돼 있다. 우승 후에는 자동차 2대를 동원해 카퍼레이드를 했으며, 낙천식당에서 만찬도 가졌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사였다. 이 역시, 백석기 회장을 중심으로 조선불교청년회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성수 겸임교수는 소년야구단의 운영방식이 매우 선진적이었음을 주목했다. 이성수 겸임교수는 "정기적인 훈련, 타 지역과의 교류전, 대회 참가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선수 선발과 육성 과정에서도 지역 내 소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 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는 이후 한국 스포츠 단체 운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와 밀양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야구 경기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다. 이는 근대 스포츠를 통한 지역 간 교류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전국적인 체육대회 개최의 토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불교청년운동사에서도 소년야구단의 창단과 이후 활동은 혁신적인 사례라고 이성수 겸임교수는 평가했다. 이성수 겸임교수는 "청년회가 종교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특히 백석기 회장의 활동에서 보듯이, 불교청년회는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불교계가 추구했던 사회참여적 종교활동의 한 모델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불전〉 26집에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통불교문화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과 일반 연구논문 5편이 게재됐다.

통일신라 조형美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지정

국가유산청, 3월 11일 지정예고
전통건축 처마곡선 재현 옥개석
절제미 갖춘 조각기법 가치 인정

통일신라시대 조형미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사진〉이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의 동리산문(桐裏山門)을 세운 적인 선사(寂忍禪師) 혜철(慧徹, 785~861)의 부도(浮圖)이다.

동리산문은 신라 헌덕왕(809~826) 이후 당나라에서 선법(禪法)을 받은 유학승들이 귀국하여 형성한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태안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파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여러 개의 석재를 짜 맞추어 조립한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부도탑의 전형이다. 탑 맨 아래에 위치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양각(陽刻, 돋을새김)되어 있고, 석탑의 몸을 이루는 탑신석 양 옆면에는 목조건축의 기둥과 인방(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가로부재) 등 목부재를 본떠 새겼다. 문비(門扉)와 사천왕상 등은 평면적으로 섬세하게 조각하여 하나의 조형물에서 역동적인 조각기법과 절제된 조각기법을 동시에 사용했다.



전체적인 비례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며, 목조건축의 지붕 형상을 본떠 조각한 옥개석은 전통한옥의 처마곡선과 목부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비문에 시호(적인)와 탑의 건립 시기(861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팔각원당형 부도탑의 편년 기준작이 된다"며 "기단 주변에 남아 있는 4개의 주초석은 통일신라의 승탑 중 유일하게 예불 행위를 위한 탑전(塔殿)시설을 갖추었던 흔적으로 추정되어 역사·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보로 지정한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역사의 섬' 강화 삼랑성 역사문화 사진 공모전

전등사 주최…9월 1~31일까지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가 삼랑성의 역사적 가치와 전등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2025년 제2회 삼랑성 역사문화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등사와 삼랑성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사진으로 그간의 발전과 변화를 조명한다.

공모 부문은 '옛 사진 부문'과 '일반 사진 부문'으로 나뉜다. 옛 사진 부문에서는 2000년 이전 촬영된 전등사와 삼랑성의 역사적 사진을 모집한다. 일반 사진 부문에서는 삼랑성과 전등사를 주제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전은 연령·학력·지역·국적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일반 사진 부문은 1인당 4점, 옛 사진 부문은 1인당 2점 이상 제출해야 한다. 작품은 해상도 3000픽셀 이상, 파일 용량은 3MB 이상, 10MB 이하로 jpg 형식을 갖춰야 한다.

접수는 올 9월 1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live@jeondeungsa.org) 또는 웹하드(아이디 : mgb90 / 패스워드 : 1230)로 신청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24일 전등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김내영 기자

"팔도장터관광열차 타고 템플스테이로 떠나자"

문화사업단 · 코레일 협력
3월 22일 서울역서 출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코레일관광개발과 협력해 3월 22일 서울역에서 팔도장터관광열차를 타고 출발하는 당일형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이번 기차여행은 호남선 중심 10개 사찰에서 차담, 명상, 단주 만들기 등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후, 지역 전통시장 및 명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사찰에는 갑사(충남 공주), 금산사(전북 김제), 내소사(전북 부안), 마곡사(충남 공주), 무량사(충남 부여), 반야사(충북 영동), 법주사(충북 보은), 송광사(전북 완주), 영국사(충북 영동), 지장정사(충남 논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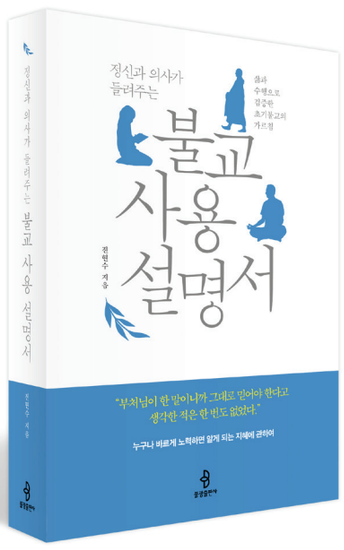
특히 이번 기차여행에 포함된 템플스테이 참가비는 60%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상품 예약과 문의는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전화(1544-7755)로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국내 최초 '불교정신치료'를 개척한 정신과 의사 전현수 박사,
40년간의 공부와 수행으로 검증한 불교를 말하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크고 작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괴로움은 점점 줄어든다. 나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괴로움이 있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괴로움은 계속되었다. 이때는 이래서 괴로웠고, 그때는 그래서 괴로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니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 본문 중에서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
삶과 수행으로 검증한 초기불교의 가르침
전현수 지음 | 640쪽 | 30,000원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마음을 씻는 경전' 세심경洗心經 『주역』
핵심만 알아도 세상 문리가 트인다!

동양철학 최고 고전 『주역』의 인문학을 섭렵하는 순간,
세상 이치와 통하는 인생 경영의 키를 쥐게 된다!



세계적 인물들이 극찬한 『주역』

『주역』을 가죽끈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읽은 공자
"배우게 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

『주역』을 500번 탐독한 탄허 스님
"불교를 제외한 최고의 철학!"

『주역』과 무의식을 접목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책"

마음을 씻고 세상을 꿰뚫는 경전
주역의 눈
이선경 지음 | 272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